

/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19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2017.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참석 경제인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강원경제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경제인 역량 모아 성공 올림픽 이끌자”

“우리가 강원경제를 다시 뛰게 합니다.”

도내 경제계 기관·단체 인사 420여명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호루라기를 불자 축포가 쏘아 올려졌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최돈진·이하 강경연)가 지난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19일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한 ‘2017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통해 지역경제가 도약하길 바라는 퍼포먼스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최문순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창올림픽은 강원경제가 최하

기관·단체 인사 420명 참석
우수기업인 15명 표창 수상
특강·기업제품 홍보 등 진행

위권’ 틀을 벗어나 전국에서도 돋보이는 성장을 이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제단체가 역량을 모아 최고의 올림픽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최돈진 강경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도내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업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서자”고 했다.

개막식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과 끝을 맺었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직접 특강 강사로 나와 “성공적인 올림픽의 3대 요건은 지역경제 과급효과 최대화, 방문객이 내 집처럼 즐길 수 있는 손님 위주의 분위기, 개최국의 경기력·참여도”라며 “강원경제인의 참여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강원일자리 안심

공제 협약’을 체결하며 일자리 특별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우수기업인으로 월드케이칼 박재희 대표, 백향우드 양홍춘 대표 등 15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경연 소속 경제단체장 전원과 김동일 도의장, 강순삼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정영훈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황환민 강원지방조달청장, 서동엽 도산업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20일까지 대회가 열려 특별강연, 기업제품 홍보, 진교 활동 등이 진행된다. 평창=신하림기자

입찰비리 의혹 평창조직위 전 국장급 간부 등 3명 출국금지

경찰 증거 확보 곧 소환조사

속보=경찰이 평창올림픽플라자와 강릉올림픽파크 임시시설물 대행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사건(본보 5월27·29·30일자 5면, 5월31일·지난1·2일자 1면, 지난 7·8·15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수사 중인 2018평창조직위 전 국장급 간부 A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춘천경찰서는 19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A씨와 A씨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B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자 A 국장 등의 경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10여명의 참고인 조사와 5월25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 휴대전화, 서류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A 국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심사평가위원을 추천한 17개 기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본보 보도를 통해 이번 입찰의 평가위원 27명이 통상적인 조달과는 달리 조달청이 아닌 평창조직위가 직접 선정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최선을 다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정윤호기자

“강원경제인 앞장서 일자리 창출 나선다”

2017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

도내 경제인 400여명 참가
강원도·중진공 업무협약 체결
‘평화의 벽’ 부스 설치 큰 호응

“우리가강원경제를다시뛰게합니다.”

강원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강원 경제 활성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한 ‘2017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가 19일 오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경제인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는 이날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일자리안심공제’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최진진 강원경제인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 기업 활성화와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축사에서 “변방에 있던 강원경제가 GRDP, 고용율, 농가소득 등에서 전국 평균을 추월하



최문순 지사와 강원경제인들이 19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에서 ‘우리가 강원경제를 다시 뛰게 합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 이재용

기 시작했다”며 “강원 경제인이 하나가 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강원도민일보의 ‘평화의 벽·통합의 문’ 캠페인 부스가 설치돼 강원경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천연애공방(대표 최미경), 디지털paper(대표 김근숙), 뉴랜드알로에(대표 윤영순), 종이여행(대표 이복현), 치약산

황골엿(대표 김명자), 두메향 한방꽃차(정화자) 등 여성기업과 메디칼드림과 네오플램 등 의료기기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 인기를 끌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도지사 표창=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 휴레브(대표 류기홍), 대영아스콘(대표 김만용), 선진종합건설(대표 원홍상), 이견약품(대표 김희두) ◇도의

회 의장 표창=대지수출포장(대표 장다영), 백향우드(대표 양홍춘), 거화(대표 엄기현), 신세계영랑호리조트(대표 김맹), 춘천포물시장운영회(부장 이대훈)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표창=이수산업(대표 김종진), 티엔씨(대표 이상오), 믿음(대표 강진원), 하나식품(대표 오성례), 두산GSP산업(대표 임동환) 김도운 helpkim@kado.net

올림픽 오버레이 시설 8곳 중

도내 기업이 7곳서 공사 맡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오버레이 시설(임시 관중석 및 부속시설) 설치공사 전반을 강원도내 기업이 주도하게 됐다.

강원조달청(청장 황환민)은 최근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 오버레이 시설 설치공사 입찰결과, 총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도내 기업이 맡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치공사 입찰은 1공구부터 8공구까지 모두 8개로 나눠 진행됐다.

방상1/하키 I·II 및 커린도메인시설 공사인 1공구 사업은 춘천 효산건설(대표 민승배)이 맡게 됐다. 65억9931만 8400원에 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 이번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방상2/아레나 및 오발, 컬링, 쇼트트랙 경기장 보조시설 공사인 2공구 사업은 흥천 예공건설(대표 엄재하)이 47억 1339만 9000원을 입찰, 선정됐다. 설상1/정선알파인 시설 공사인 3공구 사업은 영월 다혜건설(대표 김순희)이 39억 9038만 9000원에 낙찰됐다. 설상2/보평스노 시설 공사인 4공구 사업은 원주에스아이건설(대표 이남섭)이 44억 902만 8200원에, 설상3/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시설 공사인 5공구 사업은 태백 대산종합건설(대표 권형기), 설상4/슬라이딩 및 용평알파인 시설공사인 6공구 사업은 원주 선풍종합건설(대표 이영우), 대회2/개폐회식장 및 IBC, MPC 시설 공사인 8공구 사업은 원주 삼부종합건설(대표 최진락)이 각각 맡게 됐다.

대회1/선수촌 및 미디어촌 시설 공사인 7공구 사업은 경북 포항의 대양건설(대표 주백석)이 진행한다. 대양건설은 7공구 사업량의 일부를 도내 기업에 맡겼다. 신관호

평창조직위 입찰비리 수사 속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진술 확보

관련국장 출국금지 소환 조사키로

속보=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본지 6월 8일자 7면)이 전 조직위 국장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A씨와 그에게서 정보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B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소환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들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지난 7일 입찰비리 참고인 20여명 소

환을 예고했던 경찰은 이날까지 조직위 배뉴운영국 직원과 전 조직위 국장 A씨로부터 사전에 입찰정보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B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직위의 사업정보가 B업체에 누설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달 25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증거분석을 마쳤으며, 계속해서 평가위원을 추천한 17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A씨를 비롯 일부 혐의가 확인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달 초순 수사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